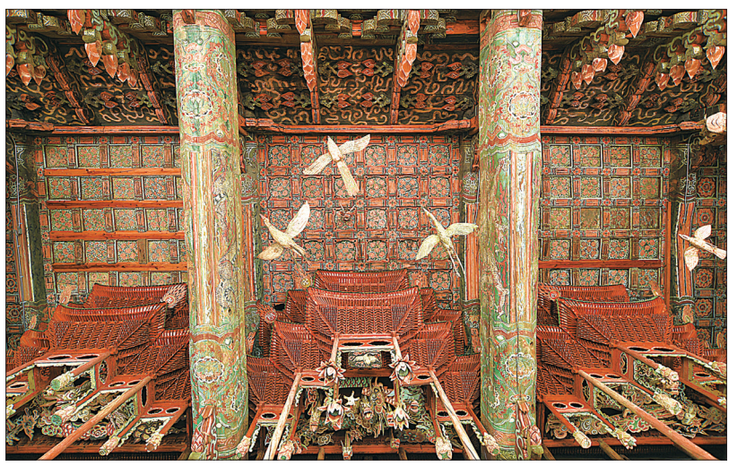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㉒ 논산 쌍계사 대웅전 닫집

▶ 한줄 요약
닫집은 집 안에 따로 지은 집, '집 속의 집'이라는 의미다. 집의 형식을 빌렸지만 본질은 부처께서 상주 설법하시는 불국정토의 궁전을 구현한 것이다.



한 법당에 '불국정토 궁전' 셋 장엄


논산 쌍계사 대웅전 천정과 닫집.


논산 쌍계사 대웅전 불상과 닫집.


논산 쌍계사 대웅전 '칠보궁' 닫집 장엄.

닫집, 집 속의 집

한국산사 법당은 삼단으로 구성한다. 한 법당에 의식단을 상단, 중단, 하단의 세 곳에 마련해 둔다. 상단은 정면 중앙의 의식단으로 불상을 모신다. 불상 뒤엔 후불벽을 세워 영산회상도와 같은 후불불화를 건다. 중단은 향우측인 동쪽 의식단이다. 호법신중을 봉안한다. 하단은 향좌측인 서쪽 의식단으로 영가 위패를 올려둔다. 법당 상단에 최고 최선의 불교장엄이 결집한다. 불상과 불화, 불단, 닫집, 단청 등 법당장엄의 핵심요소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그곳에 당대 제일의 예술역량이 결합하여 종교예술의 꽃을 피운다. 예술은 종교적 교의와 결합하여 물성을 초월한 숭고함으로 현현한다. 장식이라는 물질성을 여의고 고차원적이며 정신적인 장엄세계로 승화된다.

한국산사 법당의 상단 장엄에서 가장 독특한 구성은 법당 내부에 또 하나의 건축을 지은 중중(重重)의 구조일 것이다. '닫집'이라 부르는 한국불교 특유의 법당장엄이 그것이다. 닫집의 '닫'에 대해 〈명문 국어사전〉에서는 부사 '따로'의 옛말로 설명한다. 즉 닫집은 집 안에 따로 지은 집, '집 속의 집'이라는 의미다. 집의 형식을 빌렸지만 본질은 부처께서 상주 설법하시는 불국정토의 궁전을 구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닫집은 건축형식에 가깝다. 하지만 법당장엄으로서 목공예와 밀접하다. 목조건축이면서 목공예다. 엄밀하게는 실용성보다는 종교교의로 해석한 장엄예술 성격이 더 강하다. 건축은 대목의 몫이다. 목공예는 소목이 맡는다. 닫집 제작은 소목이 담당한다. 부재 하나 하나를 섬세하게 만들고 매끄럽게 다듬은 후 조립해서 완성하는 대단히 세밀한 공정으로 제작된다. 하나의 닫집은 소목장인의 섬세함, 세밀함, 엄정함, 그리고 사려 깊은 균형감각의 통찰 속에서 완성된다. 부산 범어사 대웅전, 강화 전등사 대웅보전, 익산 숭림사 보광전, 영주 부석사 대웅전, 완주 화암사 극락전, 부안 개암사 대웅보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등의 닫집은 한국산사 닫집의 명작으로 손꼽힌다. 특히 논산 쌍계사 대웅전의 닫집은 한국산사 닫집의 미학과 규범을 보여주는 전형으로서 손색이 없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건물이다. 18세기 초까지만 하여도 2층의 중층건물이었다. 1736년에 큰 화재로 절 전체가 소실됐다. 〈은진쌍계사중창기〉 상량문에 의하면 1738년에 중건하면서 현재와 같이 단층 건물로 세웠다고 한다. 정면 5칸, 측면 3칸의 평면 칸 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높이만 낮춘 것이다. 중층 건물을 단층으로 낮춰 중건한 이유는 고주로 세울만한 목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듯이 쌍계사 건축 기둥 곳곳엔 서로 다른 목재를 연결한 나비장이음을 볼 수 있다.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완주 송광사 대웅전 등도 원래 중층건물이었지만 중건 과정에서 단층으로 바꿨다. 그 같은 사례들은 목재 수급의 어려움에 처한 당시 시대 상황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중층 닫집 3기 칠보궁-적멸궁-만월궁

쌍계사 대웅전엔 세 분의 부처님을 모셨다. 향좌측부터 아미타불-석가모니불-약사여래 세 분이다. 세 불상 저마다 독립적인 닫집을 갖췄다. 한 법당에 3기의 닫집을 조성한 사례는 희귀하다. 불전건물 한 곳에 3기의 전통 닫집을 갖춘 곳은 논산 쌍계사 대웅전, 구례 화엄사 대웅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 등에서 드물게 볼 수 있을 뿐이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 닫집은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하고, 또 불교장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중층 아자형 대형닫집 3기를 한 법당에 장엄한 사실. 둘째는 닫집 3기 저마다 편액을 달아 닫집의 본질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불상과 닫집 편액이 유기적인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닫집 편액은 향좌측부터 칠보궁-적멸궁-만월궁 순서로 부착했다. 닫집 편액에 '적멸궁', '칠보궁', '만월궁'의 이름을 달고 있다. 닫집은 성스러운 부처님이 상주 설법하시는 궁전으로 제작된 법당 내부의 건축이다. 닫집이 궁전이라는 사실은 닫집에 단 편액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궁전은 부처님께서 숱한 겁 동안 닦아온 대원과 공덕장엄으로 이룬 불국정토를 상징한다. 불상과

닫집 본질, 부처 계신 불국토 궁전
닫집에 내건 공통 편액은 '적멸궁'
폭 3.8m 중층닫집에 10출목 쌓아
붉은 화염문에 '卍', 범자 '옴' 심어

닫집 궁전은 자연스럽게 아미타불-칠보궁, 석가모니불-적멸궁, 약사여래-만월궁으로 배대되기 마련이다. 아미타불의 궁전은 왜 '칠보궁'인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의 정토삼부경에는 아미타불께서 48대원으로 성취한 극락정토에는 칠보 연못과 칠보 나무, 칠보 누각 등으로 장엄되어 있다고 묘사한다. 경전의 내용은 아미타불과 칠보궁 닫집 편액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석가모니불의 무상정등각은 '적멸(보)궁'과 상통하고, 12대원으로 성취한 동방유리광 만월세계의 약사여래는 '만월궁'과 유기적 일체를 이룬다. 하나의 법당에 가장 대중적인 불교정토인 아미타 극락세계, 석가모니 해인삼매 화엄세계, 약사여래 유리광세계가 한꺼번에 극적으로 펼쳐있는 것이다.

다른 법당의 닫집에서도 편액을 달고 있을까? 있다면 어떤 세계를 상징적으로 구현할까? 편액을 달고 있는 닫집은 드물다. 남북을 통틀어 너댓 곳에서, 또 옛 사진 속에서 드문드문 만날 수 있다. 몇 곳의 닫집에 부착한 편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논산 쌍계사 대웅전(중층 아자형 닫집 3기): 칠보궁-적멸궁-만월궁

△남양주 흥국사 영산전(중층 아자형 닫집 1기): 내원궁(상)-적멸궁(하)

△홍천 수타사 대적광전(1층 정자형 닫집 1기): 적멸궁

△서울 흥천사 극락보전(중층 정자형 닫집 1기): 적멸궁(세로 편액)

△금강산 장안사 대웅보전(3층 중층의 아자형 닫집 3기): 극락궁-적멸궁-만월궁

△함경도 용흥사 대웅전 닫집(중층 아자형 닫집 1기): 적멸궁(상)-보광전(하)

어느 곳의 닫집이든 '적멸궁' 편액은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 왜 '적멸'로 통일되는 것일까? 적멸은 모든 번뇌의 불이 꺼진 불교 궁극의 청정 세계이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청정하고 고요한 열반적정의 세계, 그것이 적멸이다. 닫집은 적멸궁으로 통일된다.

입체로 구현한 또 하나의 경전

쌍계사 대웅전 내부 높이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약 7.5m에 이른다. 닫집의 크기는 어간의 적멸궁 가로 폭이 3.8m, 좌우 협간의 칠보궁과 만월궁의 폭은 3.6m 정도다. 세 닫집 높이는 허공에 떠 있는 기둥인 허주에서 최상단까지 대략 2.4m로 비슷하고, 세로도 셋 모두 2.1m 길이로 거의 같다. 닫집의 구조는 중층다실 구조이다. 중층의 1, 2층은 같은 형태다. 각 층의 닫집 안쪽(뒤쪽)에 5칸이 있다. 5칸 중 중앙부 3칸을 앞으로 돌출시키고, 그 가운데 1칸을 다시 앞으로 돌출시켜 칸칸이 좌우 날개 펴듯 펼친 모습이다. 칸칸칸, 중중중 구조다. 게다가 공포를 촘촘한 다포식으로 빈틈없이 층층이 쌓아 올린다. 쌓아 올린 공포의 출목 수는 1층이 외10출목이고, 2층이 외8출목이다. 주두와 공포 살미 단면 등에는 금박을 입혔다. 닫집 전체에 입힌 석간주 안료의 붉은색에 올린 금빛이 선연하고 찬란하다. 칠보 궁궐의 오색찬란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장엄 구성들은 본질적으로 경전 내용의 구현에 있다. 극락세계를 묘사하고 있는 〈아미타경〉이나 80권 본 〈화엄경〉 1권 '제1 세주묘엄품'에서 부처님이 거주하고 계신 궁전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과 겹친다. 닫집도 불단과 함께 경전 내용을 구상적 조형으로 입체감 있게 구현하고 있는 또 하나의 경전이다.

쌍계사 대웅전 닫집에서 만나는 특별한 장식으론 닫집 추녀 끝자락에 부착한 화염문 조각을 들 수 있다. 화염문 조각은 사천왕상 보관 장식에서 익히 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닫집에서는 의외다. 붉은 화염문 조각에는 원형을 마련한 후 '옴', '니' 등 범자 종자자(種子字)와 부처님의 상징 문자인 '卍'자를 적어 닫집의 청정 불국정토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범자와 결합한 붉은 화염문 조각은 마장으로부터 불국정토를 수호하는 내밀하면서도 강력한 결계장치로서도 유용한 것이다. 화염문 속 범자엔 신성한 다라니의 내밀한 힘이 실려 있다.

닫집의 장엄 모티프는 보편적인 특성을 가진다. 용, 연꽃, 구름, 선학, 극락조(봉황) 등 공통 소재들을 사용한다. 적멸궁이나 칠보궁, 만월궁에 사용한 소재도 동일하다. 또한 닫집 칸칸 네 모서리에서 허공에 내린 기둥(허주) 개수도 같다. 각 궁전마다 10개의 내림기둥을 내렸다. 8개는 공중에 떠 있는 허주이고, 협간 모서리에서 내린 2개는 불단 윗면까지 길게 내려 닫집의 무게를 내려받는 역학 기둥으로 활용했다. 모든 내림기둥에는 붉은 촉이 나오는 넝쿨 문양을 장식했다. 넝쿨은 대자대비의 생명에너지를 상징한다. 내림기둥 끝에 연꽃 장식을 달았다. 봉우리도 있고, 여러 씨앗이 박힌 연자방을 갖춘 것도 있다. 만개한 연꽃은 적멸궁 닫집의 허주 네 곳에만 조영해서 석가모니불의 중심성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닫집 장엄의 중심 소재는 단연 '용'이다. 특히 중앙의 적멸궁 닫집에는 특별히 아홉 마리 용을 조영했다. 부처님 탄생 때 구룡이 천상의 물을 뿜어 부처님의 몸을 씻어준 '구룡관욕(九龍灌浴)' 장면과 겹친다. 다른 두 닫집엔 한 마리 용을 조각해서 비교된다. 용이 박차고 나온 구름 조형의 표현도 다채로워 눈길을 끈다. 구름이 아니라 하늘 꽃 같다. 찬찬히 살펴보면 구름은 여의두문으로 조합했다. 길상해운의 바다다. 〈화엄경〉 '세주묘엄품'에서 묘사하고 있다. "여래의 거처하시는 궁전과 누각은 넓고 아름답고 엄숙하고 화려한 것이 시방에 가득하여 가지각색 마니보배로 이루어졌으며, 여러 가지 훌륭한 꽃으로 장식하였고, 모든 장엄에서는 찬란한 광명이 구름같이 흘러나왔다." 천상에 극락조와 선학이 날개를 펼치며 비행한다. 정토의 하늘엔 걸림이 없으니 만리무운만리천(萬里無雲萬里天)이다. 〈사진작가〉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종 합 향 : 100.000원 선향 大 : 70.000원
불 향 : 80.000원 선향 小 : 30.000원
가루향(도향) : 70.000원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